

음식과 수행

혈관 청소약, 크릴오일

인지질 결합형 오메가3은 체내에 나쁜 지방 제거속도가 월등해

2019년도에 가장 핫한 건강식품 이라고 하면 아마도 '크릴오일' 이 아닐까 한다. 얼마 전에는 중년 연기자들의 건강관리 비법으로 크릴오일이 지목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까지 오르며 엄청난 화제가 됐다.

아마도 사진으로 보면 '이거 새우잖아!'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새우가 아니다. 새우를 달기는 했지만 새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갑각류이다. 크릴은 깨끗한 남극대륙을 둘러싼 남극해를 주서식지로 하는 생물이며 먹이구조상 가장 바닥에 위치해 중금속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편에 속하는 생물이다.

크릴새우에서 추출된 크릴오일의 성분은 인지질, 아스타잔틴, 오메가3 등이 있



지만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분은 인지질이다. 왜냐하면 인지질은 다른 기름에는 없는데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인지질은 기름과 물 모두에 잘 섞이는 독특한 성질의 성분으로 이러한 인지질이 함유된 크릴오일은 일반 피쉬오일에 비해 소화, 흡수가 매우 잘 되어 그 효능이 월등하게 높다.

인지질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몸에 필요한 불포화지방산의 체내 흡수를 돕는데 빠르게 흡수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속 지방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즉, 인지질 성분이 혈관에 뭉친 지방 덩어리들을 분해하여 혈관에 쌓인 각종 지방덩어리 및 콜레스테롤들을 배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랍스타나 꽃게 등을 쪄를 때 붉게 변하게 하는 성분이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이끌어 내어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을 뿐

만 아니라 독소 제거에도 탁월하고 성인병에도 도움을 준다. 더불어 노화관리 특히 뇌 노화예방에까지도 도움을 주는 탁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크릴오일에는 고품질의 오메가3이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의 경우는 당뇨병, 심뇌혈관질환과 암, 관절염 그리고 파킨슨 병 및 알츠하이머를 예방해주며 더불어 노화진행속도를 늦춰져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메가3 같은 경우 비린내 때문에 원할한 섭취가 어렵지만 크릴오일은 비린내의 부담이 없어 쉽게 섭취가 가능하다.

크릴오일에서 가장 주목할 성분으로 인지질과 아스타잔틴, 그리고 오메가3이라는 성분을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 세인트 알렉시스 의료센터의 조셉 머플라 박사는 "인지질 결합형 오메가3은 위장에서 기초 지방산으로 분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체내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비율과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릴오일은 인지질 함량에 따라 그 효과는 엄청 달라진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크릴오일의 인지질 함량은 최소30%부터 최대 56%까지 나와 있는데 이 둘의 효과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 크릴오일을 구입할 때는 인지질 56%라고 확실하게 언급된 것을 구입하기 바란다.

그리고 크릴오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가 불편하거나 그로 인해 식욕저하, 답답한 가슴,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당뇨환자가 섭취하면 혈당수치가 무리하게 갑자기 낮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41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하니 이걸 이단입니다"

8월: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거듭나는 과정

- 1) 신앙공동체마을과 감람산 정상의 오만제단
- 2)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소
-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 5)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
- 6)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 7)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지난호에 이어서)

그 다음 심문은 감람나무와 동방의인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재판장은 처음 들어보는 감람나무 동방의인에 대해서 사기로 모는 데 자신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판장이 많은 목사들을 통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확실하게 박 장로를 엮어내어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당시 총회장으로 있던 유 목사를 증인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법정에는 신학박사이자 기성교단의 총수 유 모 목사도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방청석에서는 다섯째 천사를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학공부도 못한 박 장로를 총회장 유 목사가 완벽하게 제압할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재판장은 재판석에 앉아서 유 목사 증인을 불러 세우고 다섯째 천사를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너무나도 자문을 많이 받아 자신만만해보였지만, 애초에 신학박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자체가 무리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어떻든 재판장의 질문을 받은 유 증인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이 감람나무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용어로 구약시대 이미 지나간 인물들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박 장로가 감람나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점잖은 피우면서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 목사의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오자

박 장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중히 일어 나더니 "재판장님! 감람나무란 지나간 인물이 아니고 지금 나타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나간 인물이라면 왜 신약 묵시록 11장에 또 똑같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록해 놨겠습니까? 감람나무는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는 자이고 또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진동하는 사람이 감람나무라고 하였습니다. 나 박 장로는 이슬 은혜를 내리고 또 향기가 진동하게 날리고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권세를 주고

계속해서 박 장로와 성경토론을 해봤자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유 목사는 아껴둔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박 장로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하니 이걸 이단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섯째 천사 박 장로는 즉각 변론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권세를 주고 또한 뉘 죄든지 정하면 정해지는 권세를 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유 목사는 "재판장님, 저는 박 장로와 성경토론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박 장로와 성경토론을 시키시면 퇴장하겠습니다."라고 흥분된 마음으로 외치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유 증인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재판장이 증인을 아단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 목사를 따라왔던 당시 000교회 교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그렇게 밟고 의지했던 총회장의 증인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섯째 천사 박 장로를 이번에는 감람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공공 무어 놓으려고 한 계획도 다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통나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대장마귀는 굉장히 분개 하더니 법절차를 무시하는 분석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마귀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 장로를 제거할 목적으로 간수복장을 한 마귀줄개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루는 늦은 시간인데 간수복장을 한 이가 문을 열고 박 장로를 불러서 형무소 뒤쪽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간수복장을 한 이가 실수를 하는 척하면서 어떤 곳에도 박 장로를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복장을 한 이는 박 장로가 형무소 통통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급히 행방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은 늘과 같아서 헤엄을 칠수록 오히려 빠져들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통에서 허우적거리는 박 장로 앞에 통나무가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통나무를 붙잡고 통통 반대편으로 헤엄쳐 가서 올라가려고 했으나 벽이 미끄럽고 높아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아까 그 간수복장을 한 이가 달려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묵묵히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때마침 아무것도 모르고 통통 근처로 지나가는 간수가 보이기에, 다섯째 천사는 그 간수에게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간수는 풍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누구인지 분간할 없는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해 황급히 긴 막대를 가져와서 내밀었습니다. 이리하여 대장마귀는 다섯째 천사를 실직한 것처럼 꾸며 제거하려고 계획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전도관에서는 하늘의 사람 박 장로님이 구속된 주요 원인이 이슬사진을 조작하여 헌금을 거둬들였다고 하여



재판정에 선 박태선 장로 출처: 조선일보 1959. 3. 13. 기사

몰고 간 위증죄에 있다고 보고, 이슬성신이 찍힌 성화사진을 미국의 세계적인 사진잡지사인 '라이프'지에 의뢰한 결과 '이 이슬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며 이 이슬사진을 확대하여 정밀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미세한 육각형의 물방울 같은 입자가 빛을 받고 있는데 그 입자의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감정조각서를 통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슬사진에 대한 진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섯째 천사는 형무소에 수감된 지 16개월 만에 석방되었고 석방된 지 24일 만에 혁명이 일어나 하늘의 사람을 가두었던 정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묵시록에 감람나무를 해고자 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리라는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에는 영적인 깊은 사정이 숨겨져 있는데, 하늘의 사람을 대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을 제거함에 실패한 대장마귀가 하늘의 사람을 죽이려고 부리던 자들에게 분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언임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2019 어버이날 인류의 어버이에게 감사드리자



1 자연스럽고 다정한 멘토 청중을 사로잡은 이승우 사회자

2 라준경 승사의 테마가 있는 노래

3 프로에 가까운 플룻 명연주를 보여준 민병철 화장

4 은혜 넘치는 성도합창으로 한 마음을 이끌어낸 부산재단 식구들

5 부산재단 김원찬 승사는 하모니카와 기타를 연주하여 성도합창에 빛을 더했다

6 무궁화합창단이 박철수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며 멋진 화음을 보여주었다

7 무궁화합창단과 무궁화관현악단의 협연으로 풍성한 선율이 제단을 은혜 가득하게 하였다

8 아리랑에 맞추어 흥에 겨운 성도들이 춤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9 2부 경축행사를 관리는 성도들이 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찬송을 하고 있다